

돈, 욕망과 현실의 이중 기호

한국 근대문학 속에 형상화된 돈

우찬제 |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

돈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은 인간 삶의 현장을 문제적 공간으로 만들어 문학적 상상력을 환기시킨다. 문학에서 돈의 상상력은 주로 결핍이자 속박이며, 타락한 현실을 예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 심층에는 구조원리로서 이미 충족과 해방의 열린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불과 문자와 더불어 화폐를 지목한 이는 볼테르다. 막셀 또한 언어와 철학과 함께 돈이 같은 맥락의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보면 물물교환의 공통된 가치 기준의 부재, 욕망의 이중적 일치의 결여, 만족스러운 계산기준의 부재, 일반적 구매력의 보장수단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결국 모든 사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일찍부터 돈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현대 경제학에서는 돈을 가치 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 기능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학에서 문제삼고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욕망의 대상이다.

문학적 상상력 환기시키는 돈의 이중성 돈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은 인간 삶의 현장을 문제적 공간으로 만들어 문학 상상력을 환기시킨다.

모든 인간 운명의 발전이 속박과 해방, 의무와 자유의 변증법적 투쟁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표현됐듯이, 돈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항상 두가지 이중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돈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과 최고의 행복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인간에게 경멸적인 무관심과 복종적 현신 사이에서 여러 단계의 감정을 환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돈을 갈망하는 열렬한 욕망을 지님과 동시에 돈의 본질적인 공허함과 수단적인 성격 때문에,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라는 불합리성을 목도하게 된다는 베이컨의 지적처럼 돈은 최선의 종이면서 최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또한 선악의 척도로서 도깨비 방망이가 지니는 이중성처럼, 사회생활의

필수품이요 인간 행위의 기초며 부의 상징으로서 인간 욕망의 대상이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파멸로 통하는 마신(魔神)의 미끼며 유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돈은 교환관계의 독립적인 표현이며 중개자다. 교환관계를 통해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키는 돈은 때때로 도구나 수단을 목적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 돈은 모든 인간 및 자연의 속성을 그 반대물로 변화시키고, 사물을 어느 것이나 교환하고 역전시킨다. 이렇게 극단적인 전환성을 지닌 돈은 문학 작품 내에서 인간 실존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호며, 재현을 실체로, 실체를 재현으로 바꿔주고 미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외적이고 우주적인 수단이자 힘이기에, 항상 사회적 요인이었고 문학에서 주체의 어떤 것이었다. 움베르트 에코에 따르면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변형되는 교환 과정에서는 의미 작용의 과정이나 상징 작용이 일어나며, 이때 상징 작용은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무차별적이고 등가적인 돈의 출현으로 완성된다.

나아가 돈은 일반적인 욕망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경계가 전혀 없으며, 모든 확고한 사물들이 부여하는 외부적인 경계를 아무 저항 없이 투입해 들어가서 안으로부터 내파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삼투적이고 역동적인 액체 형상의 돈은 또한 순환성을 지닌다. 그 순환 과정에서 돈은 여러 부류의 인간상들을 만났다. 금전적 탐욕자, 인색자, 수전노, 낭비자, 방탕자, 냉소주의자, 포만권태자 등등... 이렇듯 돈은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본체요, 욕망과 시속(時俗)의 풍향계임과 동시에 문학 특히 소설이라는 허구의 미학과 환상 및 상징에 적절히 조응하는 징표면서, 소설에서 현실을 말하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거둬들여 되풀이되는 기호다.

1920년대 소설에서 돈은 행위의 원천이자 기호로 재현돼 1920년대의 궁핍한 현실은 정치적, 사회적이며 미학적이고 수사학적 기호인 돈으로 하여금 경제

적 상상력을 추동케 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리얼리즘 소설을 이루게 한다. 돈의 결핍 현실과 리얼리즘에 대한 작가들의 근원적인 인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국 소설의 근대성이 본격화된 시기가 바로 1920년대다. 일제 강점기 보편적인 생활 양식의 한 증후로서 돈의 결핍 현상과 당대에 수용된 근대적 리얼리즘의 영향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등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1920년대 소설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행위의 원천적인 동기이자 기호로 재현된다.

확실히 1920년대 소설은 돈의 결핍 상황을 심각하게 문제삼는다. 18·19세기 소설들이 돈을 벌어서 성취하고 상승하는 경우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시대의 소설들은 돈으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고 몰락하는 실패와 하강 퇴행에 그 리얼리티의 시선을 집중한다. 흔히 소설이 상식적으로 리얼리스트적하다면 인물이 금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라고 말하지만, 이때 돈의 결핍 상황은 인물의 기대 구조를 심각하게 좁히기 마련이다. 이에 리얼리즘 소설에서 문체적인 인물들은 주로 돈의 결핍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세계에 대한 저항자로 성격화하는 경우가 많다. 1920년대 소설에서 윤리적 반항자거나 냉소주의자, 살인자, 방화범 등 원초적 저항자들을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가령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가난한 주인공의 병든 아내는 약 한 첩, 설렁탕 한 그릇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정조(貞操)와 약가(藥價)>의 여주인공은 병든 남편의 약값이 없어 자신의 정조를 의원에게 바쳐야 했다. 김동인의 <감자>의 여주인공 복녀는 “정업이 도둑질이고 부업이 매음”인 빈민굴에 살다가 타락해 매춘녀로서의 싸구려 인생으로 죽어간다. 그녀가 매춘굴에 든 것은 송충이 잡이를 해서 일당 32전을 받는 것보다는 매춘을 통해 놓고도 40전을 받을 수 있다는 발견(?)이 있고 나서부터다. 나도 향의 <물레방아>에 나오는 방원은 돈이 없어서 아내까지 유린당하고 끝내 살인과 자살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그의 아내는 돈없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항변한다. “계집년 하나 건사 못하는 위인이 계집 보고 욕만 하고 한 게 무엇이야? 그래 은가락지 은비녀나 한 벌 사 주어 보았어?” 반면 돈 있는 주인에게 아내를 빼앗긴 방원의 최중 푸념은 말 그대로 처절한 절규다. “돈이 있으면 제일이나?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돈! 돈! 흥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최서해나 카프 계열의 작가들은 돈의 모순에 대해 더욱 완강하게 저항하고 비판했다. 최서해의 돈 없는 주인공들은 살인, 폭력, 방화 등을 서슴지 않고 감행한다. 돈으로 모순된 세상에 대한 준열한 심판이고 응징의 상징이다.

1930년대에도 궁핍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김유정의 주인공은 아내마저 50원에 팔고 만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자기 몸을 판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유정의 소설에서 인신매매는 그 양상이 꼭 다르다. <가을>의 경우 복만이 아내를 팔게 된 경우는 나날의 양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서에 지장을 찍는다.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 아내의 대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아내 판 돈을 세는 모습도 매우 회화적이다. “일원짜리 때묻은 지전 뭉치를 끄내들드니 손가락에 연신 침을 발라가며 앞으로 세여보고 뒤로 세여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꺼꾸로 들고 또 침을 발라 가며 공손히 세여본다. 이렇게 후질근히 침을 발라 썩건만 복만이가 또다시 공손히 발르기 시작하니 아마 지전은 침을 발라야 장수 하나부다.” 돈에 영혼이 주린 자가 얼마나 갈급해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복만이뿐만 아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관찰자는 팔 아내가 없음을 한탄한다. “돈은 없고 복만이같이 내팔을 아내도 없다. 우리 집에는 여편네라곤 병들은 어머니밖에 없으나 나이도 늙었지만(좀 부끄럽다)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고… 나도 일찍이 장가나 들어 두었으면 이런 때 팔아먹을 걸 하는 부끄러운 후회뿐으로.” 근대문학의 대표적

인 모더니스트 이 상은 1930년대판 꼬꾸(情夫)를 둔 여성의 남편)를 창조해냈다. <날개>의 주인공은 여왕봉에 기생하는 꼬꾸와 다름없다. 손님은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는 그것을 나에게, 나는 그것을 다시 아내에게 주고 아내를 산다. 즉 아내와의 성적 교환도 돈이 지불된 연후야 가능한 것이다. ‘손님-아내-나-아내’ 사이의 이와 같은 역전된 돈의 연쇄야말로 이 불쌍한 꼬꾸가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진다. 그래서 꼬꾸는 한없이 슬프고 또 슬프다.

해방 이후에도 돈의 질곡 현상은 이어졌다. 1950년대에 이 땅에서 전혜린이 “돈이 떨어지다. 배는 다소 고프지만 나는 즐겁다. 오늘은 가을 하늘이 멋이 있었고…” 운운한 것은 일종의 낭만적 허위에 가까웠다.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문학에서 돈의 상상력은 다시 개화한다. 황석영의 <객지>나 <삼포 가는 길>에 나오는 떠돌이 인생들, 조세희가 아프게 그려낸 수많은 ‘난장이’ 들, 윤홍길의 <아홉살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들의 초상이 그것이다. 이는 1980년대에 방현석, 정화진, 김한수 등등의 노동, 민중 소설들로 이어졌다. 시인 김승희가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갈파할 정도로 소비사회적 특성을 보인 1990년대에는 양상이 좀 달라진다. 오규원의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사랑의 감옥>, 최승호의 <세속도시의 즐거움>, 유 하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등의 시집들에서 소비사회의 풍경들과 더불어 돈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거니와, 이순원의 소설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는 타락한 돈의 소비 현실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식의 소산이다.

**충족과 해방의 열린 세상
지향하는 문학 속의 돈**

돈의 문제들과 상상력은 결코 간
단치 않다. 다만 문학에서 돈을
다룰 때, 대부분의 작가들이 매

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경제 부총리까지 지낸 작가 김준성 역시 <돈 그리기>에서 그랬다. 현대사회에서 돈의 본질 및 그 왜곡된 병리현상을 잘 파헤치고 있다. “인간이 돈이라는 수단을 발명해냈을 때 이미 인간의 불행이 예고됐던 그 원천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의 전언은 자못 심각하다. 정녕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 서둘러 결론을 말할 일은 아니다. 다만 문학이 현실과 인간을 밝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어려운 작업이라면, 그 안에서 몇 마디쯤은 할 수 있겠다. 문학에서 돈은 말한다. 문학에서 돈의 상상력은 주로 결핍이요 속박이며, 주로 타락한 현실을 예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심층 구조원리로서 이미 충족과 해방의 열린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

우찬제 교수는 서강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강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욕망의 시학> <상처와 상징> <타자의 목소리> 등을 펴냈다.